

| 법률상담 사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제목 : 중국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와 주민등록번호 | |
| 상담신청 내 용 | <p>중국에서 살던 조선족 중국국적 남편을 국제결혼을 통해 데려왔고 아이도 데려왔다. 그런데, 아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유치원에 보내지도 못한다. 아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 했더니 중국포기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국민처우신청을 하라고 하기도 한다.</p> |
| 상 내 담 내 용 | <p>▶ 해답</p> <p>출생신고를 하여 아이를 어머니 호적에 입적시킨 후, 중국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.</p> <p>▶ 한국에 입적된 자녀의 법적지위</p> <p>출생신고를 하면 아이는 법적인 한국국민이 된다. 또한, 아이가 중국국적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이중국적자가 된다.</p> <p>▶ 이중국적자의 주민등록번호 부여</p> <p>이중국적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다.</p> <p>첫째, 중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. 한국에 입적한 호적증명서와 국적포기신청서를 중국영사관에 제출하면 중국영사관에서 국적상실증명서를 주고(대개 1달 남짓 소요된다고 한다), 그 국적상실증명서를 우리 출입국 관리소 국적계에 제출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.</p> <p>둘째,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확인서를 받은 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.</p> <p>다만,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8세(남) 또는 22세(여)전까지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. 또한, 중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 보다 국민처우신청의 절차가 빠른 것도 아니라고 한다.</p> |